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정치, 정치 리더십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기간 동안만큼은 정치와 정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선거 열풍이 휘몰아쳤던 자리 위에 이제 수많은 국정과제들을 차분히 다져나가기 위한
조화와 화합의 질 높은 정치 한마당이 펼쳐져야 할 때이다.
새 정부 탄생을 앞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와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와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백승현 (경희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치·외교 분과장)



성경 속의 국가관

정치와 정치 리더십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의 국가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한다. 모세의 인도 하에 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민족)들과 달리 왕을 세우지 않은 채, 사사라 불리는 선지자들의 영도에 의한 신정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오랫동안 독특한 형태의 정치적 실존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그가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삼상 8:10-18). 그럼에도 백성들이 끈질기게 왕을 요구하자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셨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즉 어떻게 세워졌든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도 드러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롬 13:1-2) 바울은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딤후 3:1).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므로(골 2:10)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신다.

모든 정치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정부관리의 권위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견해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도, 히틀러, 스탈린 등의 권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

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딤후 2:1-2). 베드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주를 위해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벧전 2:13-17). 성경은 일관되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일부

그러나 국가권력 자체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은 때로 군대, 경찰 같은 강압과 강제 수단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보다 악에 가깝다. 중세 초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악한 존재인 만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악’으로 보았다. 한편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하인리히 에밀 브루너는 “비록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랑에 위배되지만, 사랑을 위해 국가가 권력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브루너는 사회의 부정과 정부의 폭정에 교회가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공의 실현을 위해 정부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국가는 비록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제정된 제도와 산물이지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자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치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라도, 국가의 모든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의 국가와 그 권력을 행사하는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 즉 정부관원을 구별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 국가관의 기초이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즉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나라의 시민권(요 18:36)을 가진 존재이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며 협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집권자들을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집권자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義)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듯이(행 4:19-20), 백성(국민)은 정부나 권세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권력이나 엄청난 구조적 불의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혹자들은 폭력적 방법을 불사하는 저항도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에 불의로 저항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또 하나의 불의이자 폭력에 해당한다. 성경은 이러한 대응에 반대한다. 악을 악으로, 불의에 불의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

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던 관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고 하였다. 국가의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명제이자 기독교적 국가관의 요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명령에는 당연히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하는 인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삶의 한 단면이다. 또한 정치가 인간만의 특징인 만큼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또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정치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다. 즉,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육체적 존재로 보든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초월적 영역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는 존재로 보든가 또는 그 어간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든가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달라진다. 기독교적 관점은 당연히 인간을 물리적 차원과 초월적 영역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는 존재로 본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간관을 살펴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창세기 기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때로 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 인간 본성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할 수도, 그릇되거나 악한 것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의지적(willful) 존재라는 것이다. 즉 악한 행위는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며, 인간은 선과 악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구약 대부분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여러 선지자들의 잦은 훈계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길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징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구약은 옳은 길을 행하기로 선택했지만 악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마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여 죄악의 길에 서게 되었으나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과 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이다.

다니엘의 지혜

성경은 정부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이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단 4:27) 이 문본은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치가 부패와 타락, 음모와 술수 등으로 얼룩져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는 인간을 부패시킨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삶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부정의 근원을 인간 영혼의 무질서에서부터 찾아냄으로써 인간 행동의 일탈성(죄)에 대해 반성(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치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치유의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치 지도자를 현실정치에서 맞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사회의 범주에서 치유가 어렵다면, 적어도 한 개인의 작은 우주인 인간 영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에서 시작하여 점차 동료 시민들의 영혼 속으로 한 사람씩, 시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영혼적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때,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바로 그러한 질서 잡힌 영혼과 의식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더욱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에베레스트가 고산준봉들로 가득한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 그들 중 우뚝 솟아 세계 최고봉이 된 것과 같이.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치/외교 분과장이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했다. 현재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